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달라져… '글로벌'➜'변화와 혁신'

〈2010〉 〈2019〉

시가총액 30개 기업인재 키워드 분석

창의·창조 > 도전 > 열정 등 順
'고객중심' 사고 강조기업 40%

국내 대기업들의 인재상이 과거와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인재'를 1순위로 꼽았던 기업들은 크게 줄어든 대신 '변화', '혁신', '창의'를 인재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21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인재상에 등장하는 키워드 총 25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집계결과 요즘 대기업 인재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으로 응답률 63.3%나 됐다. 조사 대상 기업 10개사 중 6개사 인재상에서 '변화와 혁신'이란 키워드가 등장했다.

기업별로 삼성의 경우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인재상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도 '기존의 정해진 질서에 도전하여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가'를 인재상 중 하나로 꼽았다. KT&G 인재상 중에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가 포함됐다.

변화와 혁신에 이어 '창의·창조' 키워드가 기업 인재상에 등장하는 경우(60.0%)도 많았고, 이어 '도전(53.3%)', '열정(53.3%)', '전문가/최고(50.0%)' 순으로 인재상을 소개하는 기업이 많았다.

삼성생명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소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과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으로 창조 사회의 새로운 기업가치와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한다고 소개했다. LG전자도 '팀 워크를 이루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인하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하는 인재'를, 한국전력공사도 '도전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꼽고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강행하는 역동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한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고객가치/고객중심/고객최우선'등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는 기업이 40.0%로 많았고, '세계/글로벌 시장(40.0%)', '도덕성', '인간미', '책임감'을 인재상에서 강조하는 기업이 각 26.7%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2010년 동일 조사결과와 적지 않은 변화를 드러낸다. 실제 2010년 대기업 인재상 공통키워드로 '글로벌 경쟁력/국제감각'과 '창의/창조'가 응답률 각 5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전(51.2%)', '전문가(48.8%)', '조직력/팀워크(25.6%)', '혁신적 사고(25.6%)' 순으로 대기업 인재상에 많이 등장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과거 동일 조사결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 650개 명품강좌 온라인서 무료제공

2019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

K-무크,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회원 35.7만, 누적수강 77.6만건

대학의 명품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하는 강좌 수가 올해 대폭 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강좌를 듣고 학점·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기본계획'을 마련, 올해 150개 신규 강좌를 추가해 총 65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하반기부터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K-무크는 대학의 우수한 명품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1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직업교육 강좌 등 신규 150강좌가 추가된다.

K-무크 강좌는 도입 첫 해 27강좌에서 지난해까지 510개 강좌로 확대됐고, 회원 가입자 수는 처음 3.5만명에서 지난해 35.7만명으로, 수강신청 누적건수는 77.6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개발돼 제공되는 강좌는 2017년 K-무크 선도대학 10개교 강좌 30강좌를 비롯해, 묶음강좌 40개, 개별강좌 50개, 교육부 등 재정지원사업 활용강좌 25개, 기관별 자체재원 활용 강좌 5개 등이고, 프랑스와 태국의 온라인 공개강좌도 추가된다.

특히 묶음강좌 40개는 '무인조종기전문가양성과정', '문화재보존전문가양성과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전문인력양성 분야를 주제로 수강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 활용될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단국대 SW·디자인융합센터 'iF 디자인어워드' 수상

단국대는 SW·디자인융합센터의 '수원시 스마트시티 모바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난 15일 '2019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IDEA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불린다.

수원시 스마트시티 모바일 플랫폼 구축 사업은 수원시 산하 50여개 기관의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시각정보와 콘텐츠별 이용 빈도를 빅데이터에 기반해 음성으로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비스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시도될 예정이다.

앞서 단국대와 수원시는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차례 디자인씽킹을 거쳤고,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단국대 SW·디자인융합센터 김태형 센터장은 "수원시의 교통, 문화행사, 복지, 대기환경 등 다양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모바일 기반 음성정보로 서비스되는 점이 혁신의 사례로 평가받았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시원스쿨 '독일어 첫걸음' 베스트셀러 1위

외국어 교육 전문 기업 시원스쿨은 도서 'GO! 독학 독일어 첫걸음' 베스트셀러 1위 달성을 기념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신규 채널을 오픈해 해당 교재 음원을 무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독일어' 또는 '시원스쿨'을 검색하면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도서 주요 콘텐츠를 담은 무료 음원은 언제 어디서나 청취 가능하고, 하루 20분이면 왕초보도 독일어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시원스쿨 측은 설명했다.

'GO! 독학 독일어 첫걸음'은 독일 현지에서 독일인이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엄선해 말하기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실용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이에 예스24 독일어 분야 베스트셀러 6주 연속 1위, 교보문고 5주 1위, 알라딘 1월 월간 베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원스쿨 독일어 관계자는 "한 권의 책으로도 독일어 독학이 가능하도록 학습자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베스트셀러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 인생의 답될 것"

文 대통령,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

'독립운동가' 대학 설립자 소개
3·1절 100주년 연관행보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유한대학의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이기 때문이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 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낭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즉 문 대통령의 '독립선언서 캠페인' 및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행보는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의 일환인 셈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경희사이버대 내일 석·학사 1462명에 학위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3일 오전 1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426명, 석사 36명 등 총 146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는 개교 이래 학사 학위자 2만7681명, 석사 학위자 415명 등 총 2만8096명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의 우수졸업자 시상과 학위수여, 졸업식사, 졸업생 대표 연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관리학과(구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이광준 씨가 총장상을, 관광레저항공 MBA전공 한필규 씨,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성진 씨, 글로벌한국학전공 김은혜 씨가 각각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한다.

축하공연은 팝페라 그룹 포마스의 '위아더챔피언' 공연과 박요셉의 '걱정말아요 그대' 공연이 펼쳐진다. 포마스 멤버 김용호와 박요셉은 경희대와 경희대 대학원 성악과를 졸업했다.

본 행사 이후에는 각 학과(전공)별 학위수여식이 단과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동문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는 23일 오전 11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1426명, 석사 36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